



조 성수

5:47 AM (16 hours ago)

to

## “러스텐버그, 크룬달 마을의 예배당과 유치원(탁아소) 건축”

\*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올립니다.

'바른 복음으로 제자 삼는 사역'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와중에도 남아공 러스텐버그 도시 권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-사진 설명은 사진 아래에 두었습니다.



\*러스텐버그 시내에 가까운 크룬달 마을, 공동 생활하는 센터에서 10 여킬로미터쯤 떨어져 있습니다. 땅의 크기가 작아서 아쉽습니다만 예배당은 42 평쯤, 유치원은 4 개 교실을 32 평쯤에 짓고자 합니다. 아직 크룬달의 땅은 시청에서 양성화되지 않았습니다. 그럼에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마을을 크게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. 이곳에 지난 2018 년 7 월부터 안세혁선교사 (2019 년 2 월에 비자 연장이 안되어 6 년간의 사역을 뒤로하고 한국에..)와 타넬레 등 더비 교회 출신 청년들이 크룬달을 개척하기 시작했구요. 시청의 조언을 받아 그 마을의 리더들이 증인이 되고

변호사를 통해 땅 구입을 마쳐갑니다.

더비 마을의 예배당, 그리고 레노스터폰테인 마을에 있는 학교 교실을 짓도록 후원하신 성현성결교회(김부열목사님)와 레파라하테의 예배당을 건축하신 서울반석교회(유영선장로님)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.

-이제 조성수와 권희숙의 남아공 사역은 레파라하테, 메리핑, 더비, 크룬달 4 마을에 세운 예배당과 유치원 그리고 레노스터폰테인 마을에 있는 노블팜스 학교 사역으로 마쳐지게 됩니다. 이후로 러스텐버그 지역을 비롯 다른 나라에 있어질 사역들은 저희의 다음 세대들(한국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)이 할 것입니다.

-맨 왼쪽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안 선교사를 도와 크룬달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사역하는 타넬레, 그 옆 흰옷은 그 동네의 리더, 그 다음이 백종민 형제(저의 조카), 파란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샘(지금 더비 성현교회 제일 앞선 리더, 1988 년생이고요. 저희와 12 년 같이 살고 있습니다. 결혼해서 어린 딸 하나 있습니다.) 그리고 뒤에 흰 잠바 입고 있는 사람이 토마스인데 지난 2019 년 9 월 중순에 강원도 문막으로 옮긴 월간 한국인선교사 쉼터 수리할 때 피터와 함께 한 달 동안 와서 수고했었습니다. 벽돌 쌓는 아저씨인데 저희와 10 년 간 지내고 있습니다. 이곳에 예배당이 지어지면 지키면서 살았으면 합니다. 이 사진은 피터가 찍었는데 메리핑 마을의 교회에서 제일 앞선 리더입니다.



-그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. 쓰레기들이 너무 많네요. 그래서 이제부터 주일마다 쓰레기도 줍고 주변을 깨끗하게 할 것이겠고요. 예배당이 들어서면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잘 섬기겠다 싶습니다.

**“2021 년 후원금 보고 및 2022 년부터 후원금 줄이시되 하실 수 있다면 작게라도, 제가 70 세 될 때까지.. 이제 65 세 넘었습니다.”**

\*올해, 한국에서

고천성결교회, 대하교회, 서울반석교회, 성복교회, 성현성결교회, 강연옥님, 민수연님, 신무영님, 유국현님, 이명심님, 이춘화님 그리고 미국에서 오병이어 선교회, 남가주 헬로쉽교회, 뉴저지 명성교회, 매디슨 사랑교회, 시카고 한인교회, 오은희님, 정조셉님 등 교회와 개인이 1 만 원에서부터 300 불까지, 일 년에 한 번 혹은 매달 보내주시는데 모두 보내주시면 매달 평균 165 만 원쯤 됩니다. 크게 감사드립니다.

-지난 20 년간 레노스터폰테인 마을의 노블팜스 센터 구입 때의 차입금 그리고 이후 교실 짓기 등으로 나름 여유가 없이 지냈는데 보내 주시는 후원금으로 이제 내년(2022 년) 1 월이면 마지막 차입금 갚기의 적금이 마쳐지게 됩니다.

-만 70 세가 되면 선교사로 받는 후원금 용달샘은 스스로 닫고자 합니다. (주님의 이름이 아니면 감히 받을 수 없는 후원금을 오랫동안 받고 있습니다. 참으로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.) 이후, 노블팜스에서 지낼 때는 자급 자족이 되는 선교 센터이어서 자고 먹고 사역하는데 후원금이 없어도 되겠습니다.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 한국에 살 때에도 일용할 양식은 월간 한국인 선교사 쉼터와 작은 연금 등으로 지내겠습니다.

\*저희는 지난 8 월 18 일 코로나 백신, 아스트라제네카 2 차 접종을 강원도 문막의 메디하임 병원에서 받았습니다. 월간 한국인선교사 쉼터를 잘 돕고 10 월 27 일 남아공으로 가려는 중입니다.

\*존경하고 사랑하는 모든 분, 주님 안에서 꼭 강건 하시기를 간절히  
소원합니다. 조성수, 권희숙 올립니다. 2021 년 8 월 31 일

<https://spark.adobe.com/page/o4bn13GDN2zNf/>